

18세기-19세기 전반 러시아의 대중국 접경도시 카흐타의 잡거와 혼종*

박지배**

목차

- I. 머리말
- II. 접촉지대의 혼종성과 접경도시 카흐타
- III. 카흐타와 마이마첸의 모습에 나타난 잡거
- IV. 카흐타의 접촉방식과 혼종성(국가 간 대면과 민간 교류의 비교)
- V. 맺음말

I. 머리말

장기 16세기에 시작된 인류의 팽창은 범지구적 현상이었다. 이는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접촉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오늘날 지구촌의 모습이 형성되었다. 이런 과정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히 서유럽인들의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침탈로 인한 문화 충돌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3079318).

이 연구는 (2019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조교수

그것이 미친 영향에 대한 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메리 루이스 프랫은 17세기 초 안데스 주민의 작품인 구아만 포마 연대기 연구를 통해 ‘접촉지대(contact zone)’라는 유용한 개념을 제시했고,¹⁾ 다른 많은 서양 연구자들이 수행한 아메리카, 특히 서유럽의 초기 접촉지대였던 카리브해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혼종성, 크레올화 등의 개념을 낳았다.²⁾

한편 세계평창에 대한 연구에서 내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공간이다. 이는 서유럽의 대항해 시대라는 거대 담론이 근대시기 범지구적 평창에 대한 사유를 독점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6세기 이후 전개된 러시아의 동부평창과 청의 서부 진출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다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중요한 연구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³⁾ 물론 내륙아시아 종족들 사이의 접촉이 서유럽의 아시아 진출이나, 아메리카의 발견만큼 극적이지 않았을 수 있다. 아시아는 어쨌든 육지로 이어져 있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태고부터 어느 정도 접촉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 16세기 이후 동부유라시아 주민들 사이의 접촉은 중요한 차원에서 그 이전과는 달랐다. 청과 러시아의 평창은 17세기 중반부터 두 제국 간 군사 충돌을 가져왔고,⁴⁾ 두 제국은 공존을 위한 타협으로 양국 사이에 거대한 국경선을 획정했다. 이 때문에 중북부 유라시아 지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접촉하던 많은 종족들은 어느 한 제국을 선택해야 했고, 이제 이들 사이의 모든 접촉은 양 제국이 만든 국경의 규칙을 따라야 했던 것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18-19세기 전반 청과 러시아의 국경도시 카흐타에

1) Mary Louise Pratt, “Arts of Contact Zone”, *Profession* 91, 1991, pp.33-40.

2) Peter Burke, *Cultural Hybridity*, 강상우 역, 『문화 혼종성』, 이음, 2012, 95-98쪽.

3) Peter C. Perdue, *China Marches West :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Eurasia*, 공원국 역, 『중국의 서진』, 길, 2014.

4) 러청 간의 초기 충돌에 관해서는 필자의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박지배, 「17세기 중반 러시아의 동북아진출과 ‘나선정벌’의 의미」 『역사학보』 240, 2018.

주목하고자 한다. 카흐타에 대한 연구는 도시가 속한 러시아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상당수는 카흐타를 통한 대중국 무역에 대한 연구이고,⁵⁾ 특히 차 무역은 별도의 주제로 다루어졌다.⁶⁾ 반면에 문화적 접촉지대라는 관점에서 진행된 카흐타 연구는 많지 않다. 남사라예바는 접촉지대의 관점에서 청 주민의 디아스포라에 관한 논문을 썼으나, 주로 몽골 무역 도시들로의 이주를 다룬 연구이다.⁷⁾ 또한 페트로프는 카흐타에서 중국인과 러시아인 간의 접촉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나, 논의의 대부분은 자료가 풍부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집중되어 있다.⁸⁾ 그 외에도 주로 카흐타를 통해 이루어진 차 무역이 동부 시베리아 주민의 일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⁹⁾ 카흐타 무역이 러시아, 중국, 몽골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
- 5) И. А. Носков, *Кяхта. О кяхтинской торговле чаем*, Иркутск, 1861; X. Трусевич, *Посольские торговые сношения России с Китаем до XIX века*, Москва, 1882; Б. Курц,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монополия в торговле с Китаем*, Киев, 1929; Е. П. Силин, *Кяхта в XVIII веке. Из истории русско-китайской торговли*, Иркутск, 1947; А. Н. Хохлов, “Кяхтинская торговля и ее место в политике России и Китая (20-е годы XVIII в. - 50-е годы XIX в.)”, *Документы опровергают. Против фальсификации истории русско-кита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осква, 1982 등.
- 6) А. П. Суббогин, *Чай и чайная торговля в России и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ах*, Петербург, 1892; Н. Е. Единархова, “О чае и чайной торговле”, *Земля Иркутская* 5, 1996; Т. С. Доржиева, “Чайный пу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Бурятии: история и топонимия”, *Вестник Буря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0, 2009; И. А. Соколов, *Чай и чайная торговля в России: 1790—1919 гг.*, Москва, 2012; Марта Эйвери, *Чайный путь. Китай и Россия встречаются через степь*. Пер. с англ. А. Гилевича, Москва, Beijing, 2005; Н. Г. Фильшин, “Кяхта и северный маршрут Великого чайного пути”, *Вестник Буря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 2017; Lee Chinyun, “From Kiachta to Vladivostok: Russian Merchants and the Tea Trade”, *Region: Regional Studies of Russia,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3(2), 2014 등.
- 7) С. Б. Намсараева, “Миграции во Внутренней Азии цинского периода: диаспоры Контактной зоны Кяхта-Маймачен”, *Вестник Буря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Гуманит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нутренней Азии* 1, 2013.
- 8) А. И. Петров, “Китайцы в Кяхте”, *Вестник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1, 2009.

연구¹⁰⁾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카흐타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가 있으나 기존의 연구들은 도시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정치·경제적 역할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카흐타의 접경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필자는 러청 국경도시 카흐타를 하나의 접촉지대 또는 접경도시로 보고 카흐타가 갖는 잡거와 혼종적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카흐타는 18-19세기 상당 기간 동안 러청 두 제국의 공식 창구로 기능했고, 양측 정치인들이 조우하고 상인들이 교류하는 공간으로 발전했다. 필자는 카흐타의 모습을 그 카운터파트인 청의 마이마첸(오늘날 알탄블라크)과 비교하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동거하고, 접촉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러청 접경지역의 잡거 방식과 혼종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유라시아 접경공간의 접경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청 접경이 지경학적으로 ‘한 제국의 식민지 경계’라기보다, 두 제국의 정치적 완충지대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러청 접경지대가 국가적 경계로서의 국경지역이면서 민간 교류의 장으로서 접촉지대라는 측면을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물론 카흐타나 마이마첸 같은 도시들이 우리에게 매우 낯설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유럽의 팽창으로 인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전개된 접촉이 아닌, 다른 공간과 다른 방식의 문화 접촉에도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서유럽 식민지에서 벌어진 접촉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유라시아의 오랜 규칙은 기본적으로 상대 문화를 존중하는 것

-
- 9) А. И. Кожухарь, “Влияние российской чайной торговли с Китаем и Монголией на повседнев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 века”, Диссер. канд. ист. наук, Иркутск, 2015.
- 10) Н. Е. Единачкова, “Кяхтинская торговля в 40-60-е гг. XIX в. и ее влияние н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оссии, Монголии и Китая : по русским архивным и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источникам”, Диссер. канд. ист. наук, Москва, 1978.

이었다.¹¹⁾ 이렇게 기본적인 조우의 조건과 문화적 기반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청과 러시아의 접경 연구를 통해 서유럽식 문화충돌과는 다른 사례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다는 사실이 해서 필자는 연구를 위해 필요한 사료를 직접 선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필자는 먼저 18-19세기 전반의 카흐타에 관한 여행기들에 주목하여, 이것들을 중심으로 카흐타에서 잡거와 혼종하는 모습을 ‘접촉지대’의 관점에서 구성하려고 한다. 프리시아의 자연과학자이자 백과전서파인 팔라스(Peter Simon Pallas)는 1770년대에 러시아 변경 지역을 여행하며 4권으로 구성된 총 6책의 저서를 남겼는데, 1772년에 카흐타와 마이마첸을 방문하여 3권 첫 번째 책에 생생한 기록을 담았다.¹²⁾ 러시아의 풍경화가 마르티노프와 프리시아의 동방학자 클라프로트(Julius Heinrich Klapproth)는 골롭킨(Ю. А. Головкин)이 이끄는 대중국 사절단에 참여하는 길에 1805년에 카흐타를 방문하여 각각 카흐타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과 기록을 남겼다.¹³⁾ 이르쿠츠크 지사 트레스킨은 1810년에 카흐타에서 청의 국경책임자들을 만나 양국 간 대사 교환에 대

11) 아부 루고드는 ‘13세기 세계체제’를 다룬 자신의 명저에서 동아시아와 서아시아가 주도하던 근대 이전의 세계체제는 매우 다양한 문화체제들이 공존하고 협력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 주었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공존과 상호 관용으로부터 이득을 보았으며, 이러한 게임의 규칙은 16세기 서유럽인들이 난입하면서 변화되었다. Janet L. Abu-Lughod, *Before European Hegemony: The World System A.D. 1250-1350* 박홍식, 이은정 역, 『유럽패권이 전 13세기 세계체제』, 까치, 2006, 385, 393-394쪽.

12) П. С. Паллас,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разным провинциям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Ч.3-1, Петербург, 1788.

13) А. Е. Маргънов, *Живопис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от Москвы до китайской границы*, Петербург, 1819; Ю. Г. Клапрот, “Описание Кяхты. (Из путешествий Г. Клапрота)”, *Сын отечества*, Ч.33, № 42, 1816, p.123; Ю. Г. Клапрот, “Замечания о китайско-русской границе, собранные Юлием Клапротом во время путешествия по одной в 1806 году”, *Северный архив*, Т.6, № 9-12, 1823.

한 회담을 하면서 당시 만남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했다.¹⁴⁾ 러시아 외교관 팀코프스키는 1820-21년에 러시아 선교단을 이끌고 청을 방문했고 그에 관해 3권 분량의 여행기를 남겼는데 거기에 카흐타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¹⁵⁾ 특히 독일인 물리학자인 에르만(Georg Adolf Erman)은 1829년에 카흐타와 마이마첸을 들러 다른 여행기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흥미로운 국경의 일상을 전해주었다.¹⁶⁾ 한편 러시아 정교회 사제이자 저명한 동방학자인 비추린이 1830년에 카흐타에 머물면서 예리한 관찰력을 발휘해 기록한 카흐타의 일상 역시 매우 흥미롭다.¹⁷⁾ 이외에도 시베리아 카자크의 아들로 이르쿠츠크에서 태어나 거기서 성장한 파르쉴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카흐타에서의 생활을 포함해 자바이칼지역에 대한 여행기를 남겼다.¹⁸⁾ 여행기의 작가들은 대개 일반인들은 아니었고, 정치가거나, 저명한 학자 또는 탐험가였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여행기의 속성상 여행자 개인의 주관적 성향이 들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행기를 기본 사료로 이용한다고 해도, 사안별로 정부 보고서나 법령집들과 대조하거나, 기존의 연구성과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14) Н. И. Трескин, “Журнал дружеского свидания Иркутского гражданского губернатора, действительного статского советника Трескина, с китайскими пограничными правителями, ваном и амбанем с 19-го Февраля по 13 Марта 1810 года”, *Чтения в императорском обществе истории и древностей российских при Москов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овременное издание, 1860, январь-март, Кн.первая, Москва, 1860.

15) Е. Ф. Тимковский, *Путешествие в Китай через Монголию в 1820 и 1821 годах*, Ч.1, Петербург, 1824.

16) Д(октор). Эрман, “Отрывки из дневника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а по Сибири”, *Северная пчела*, 14, 15, 16, 17, и 18 июня 1832 г.

17) Н. Я. Бичурин, *Ради вечной памяти*, Чебоксары, 1991.

18) В. П. Паршин, *Поездка в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История города Албазина*, Ч.1-2, Москва, 1844.

II. 접촉지대의 혼종성과 접경도시 카흐타

피터 버크는 <<문화의 혼종성>>에서 혼종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개념들을 소개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의 만남이 서로 다른 장소, 다른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념들 가운데 상황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¹⁹⁾ 필자는 18-19세기 전반 청과 러시아의 접경공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메리 루이스 프렛의 ‘접촉지대(contact zone)’ 이론을 적용하려 한다. 이는 프렛의 개념이 비판자의 눈에도 ‘하나의 눈부신 모델(a glaring example)’로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²⁰⁾ 무엇보다 프렛이 정의한 서유럽과 아메리카의 접촉지대와 동아시아의 접촉지대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프렛의 접촉지대는 매우 흥미로운 문화 이론이다. 그는 접촉지대를 문화가 조우하고 충돌하고 해결을 위해 서로 다투는 사회적 공간으로 정의한다. 이곳에서는 식민주의, 노예제도 그리고 그것들의 후유증으로 식민자와 원주민 간에 권력의 비대칭 관계가 작동한다.²¹⁾ 그러나 이러한 비대칭 속에서도 문화 교류는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다. 즉 식민자 문화가 식민지 문화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양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프렛은 이러한 방식을 ‘문화횡단(transculturation)’으로 설명한다. 그는 특히 식민지인들의 창의성에 방점을 두어 이렇게 말한다. “예속된 사람들은 지배적인 문화가 자신들에게 접근하는

19) Peter Burke, *Cultural Hybridity*, 102쪽.

20) Brian J. Godfrey, “Reviewed Work: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by Mary Louise Prat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3, 3, 1993, p.543.

21) Mary Louise Pratt, “Arts of Contact Zone”, p.34.

것을 쉽게 제어할 수는 없지만, 지배적인 문화의 어떤 부분을 자신의 삶에 포함시킬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띠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²²⁾ 이에 대해 사라 밀스는 명백히 제국 담론에서 식민지인들의 저항과 생산적 특징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이론적 작업이라고 평가한다.²³⁾

물론 문화화단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접촉 당사자 간 언어의 이해가 필요하다. 프랫도 접촉지대 개념을 언어학 용어인 ‘접촉언어(contact language)’에서 빌려 왔다. 접촉언어는 서로 다른 모국어를 지닌 사람들이 무역의 경우처럼 서로 지속적인 대화를 나뉘야 하는 상황에서 임시변통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따라서 이런 언어들은 대개 혼성어로 시작되며, 무질서하고 체계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²⁴⁾ 그러나 이런 접촉언어를 통해 접촉지대에서 이질적 문화가 혼종하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프랫은 자신이 언급하는 접촉지대가 사실상 권력의 비대칭성이 작용하는 ‘식민지 경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접촉의 주체들이 접촉언어라는 실질적 매개를 통해 상호 관계하는 방식을 이론적으로는 꽤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²⁵⁾

이렇게 프랫의 접촉지대 개념은 중심부의 일방적 영향이 아닌 주변부와 중심부 간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물론 오늘날의 크레올화 이론 역시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심지어 혼종성 이론에서는 특정 문화의 본질성을 인정하지 않아 지배 문화라는 것 자체를 엄격히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²⁶⁾

22) Mary Louise Pratt,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김남혁 역, 『제국의 시선. 여행기와 문화화단』, 현실문화, 2015, 33쪽.

23) Sara Mills, “Review of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by Mary Louise Pratt”,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20, 4, 1994, p.497 참고.

24) Mary Louise Pratt, *Imperial Eyes*..., 34쪽.

25) Mary Louise Pratt, *Imperial Eyes*..., 35쪽.

그러나 프렛의 접촉지대 개념은 문화이론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18-19세기 서유럽의 역사적 맥락에서 제시되어 훨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다가온다. 다만 그가 식민지인들의 주체성을 강조하다보니, 권력의 비대칭성이 문화횡단에 미치는 영향을 짐짓 외면한 듯하다. 고드프레이의 지적처럼 권력 관계가 서로 다른 지구상의 식민지들 모두가 프렛이 상정한 모델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²⁷⁾ 다른 비평가들 역시 프렛의 접촉지대에서 문화 교류가 작동하는 방식인 문화횡단에 대한 그의 논증에는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 특히 로리머는 프렛이 언급한 서아프리카의 문화횡단 사례는 오히려 불평등 교환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²⁸⁾

피터 버크가 언급한 것처럼 권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상태와 비대칭적 권력의 조건에서 일어나는 문화 충돌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중국에서 활동한 가톨릭 선교사와 멕시코, 페루, 브라질 등지에서 활동한 동류 선교사의 접근 방식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페루와 멕시코에서 유럽 선교사들은 원주민들에게 기독교를 강제하기 위해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유럽 선교사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문화의 차용자들이 대여자들에 비해 유리했다. 따라서 유럽인 선교사들은 선교 대상자들을 설득해야 했고,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의 토착문화를 받아들였고, 심지어 중국인들에게 개종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²⁹⁾ 따라서 문

26) 박민수, 「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 -호미 바바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39, 2015, 25-26쪽; 설병수, 「크레올화(Creolization), 그 다층적 맥락 읽기」 『아프리카연구』 27, 2010, 102쪽 등.

27) Brian J. Godfrey, "Reviewed Work...", p.543.

28) Douglas A. Lorimer, "Reviewed Work: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by Mary Louise Pratt", *Journal of Modern History* 68, 2, 1996, pp.430-431.

29) Peter Burke, *Cultural Hybridity*, 104-105쪽.

화횡단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려면 접촉의 조건이 다른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사례들을 수집해야 한다.

피터 버크는 문화 접촉이 좀 더 활발한 지역으로 메트로폴리스와 경계 지역을 언급한다. 두 접촉지대는 문화 간 교차로로 문화의 혼합 과정이 전개되는 공간이고, 이를 크레올이라 부르든 그렇지 않은 새롭고 개성적인 어떤 것을 창조하는 공간이다.³⁰⁾ 대부분의 학자들은 18세기 러시아의 대표적 메트로폴리스로 페테르부르크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곳은 러시아인, 타타르인뿐 아니라 독일인, 네덜란드인, 영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제국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혼종의 장이었다.³¹⁾ 무엇보다 페테르부르크는 오늘날 러시아 문화의 중요한 요소가 된 서구화가 진행된 공간이었다. 한편 화려한 항구도시인 페테르부르크만큼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거기서부터 수개월씩 걸리는 변방에 위치한 카흐타는 경계 지역을 대표하는 중요한 접경도시였다.

무엇보다 카흐타는 청과 러시아 두 제국의 충돌이 가져온 산물이었다. 미국의 중국사가 스펜스에 따르면 17-18세기 러청관계는 다음의 단계를 거쳤다. 첫 단계는 서로 알아가는 인식의 단계였고, 다음은 군사적 대립이 전개되는 충돌의 단계가 이어졌고, 끝으로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협정의 단계가 전개되었다.³²⁾ 상대를 결정적으로 굴복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일종의 타협으로 1689년에 맺어진 네르친스크 조약은 아르군강 상류에서 우다강 인근의 오희츠크해에 이르는 러청 국경선을 정했고, 러시아는 정규적으로 대중국 카라반을 파견하게 되었다.³³⁾ 그러나 1690년 청은 할하몽

30) Peter Burke, *Cultural Hybridity*, 111-116쪽.

31) Fernand Braudel, *Civilisation matérielle, économie et capitalisme, XVe-XVIIIe siècle*. 주경철 역,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1-2, 일상생활의 구조 下, 까치, 1995, 786-790쪽 참고.

32) Denis Twitchett and John K. Fairbank ed.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9, Cambridge, 2008, p.151.

33) “Нерчинский мирный договор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о границах и условиях

골을 병합한 후 러시아와 할하몽골 사이에 명확한 국경선을 정할 필요를 느꼈고, 러시아 역시 청과 더욱 안정적인 외교 및 무역관계를 원했다.³⁴⁾ 이렇게 해서 두 제국은 1727년 카흐타 조약을 통해 아르군 강 상류에서 카흐타 하천을 지나 사안산맥 서쪽까지 약 3,200킬로미터에 이르는 국경선을 정했다.³⁵⁾ 그리고 조약문 4조에서 카흐타 하천변과 네르친스크 인근 장소에서 양국 상인들이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 중에서 네르친스크 인근 추루하이타(Цурухайта)에서의 교역은 발전하지 못했으나, 카흐타는 러시아의 대중국 교류를 대표하는 무역도시로 성장했다.

따라서 17-18세기 러청관계는 대립을 해결하는 협정 단계에서 끝나지 않았고, 양국 간 잡거와 교류의 단계가 그 뒤를 이었다. 물론 카흐타 조약의 주된 목적은 러청 양국 간의 교류였다기보다는 엄격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었다.³⁶⁾ 카흐타를 통해 양국 사이에 필요한 정치·경제 교류가 이어졌으나, 양 국가는 허가된 교류 이외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했다. 하나 더 언급할 것은 러청 국경은 두 제국의 직접적인 국경이 아니라 식민지들 간의 경계였다는 점이다. 즉 새로운 국경은 러시아 식민지인 시베리아와 청의 정복지인 몽골 사이를 지났다. 몽골은 여러 면에서 청 제국과 러시아 제국의 대립을 완화하는 완충지역이었다. 즉 몽골의 존재로 청은 러시아와 계속 대립하기보다는 협정을 맺어야 했고,³⁷⁾ 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몽

торговли”, *Рус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1689-1916. Официа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Москва, 1958, pp.9-11.

34) В. С. Мясников, *Договорными статьями утвердил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русско-китайской границы XVII-XX вв.*, Хабаровск, 1997, p.188.

35) “Кяхтинский трактат с условиями политических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текст трактата с русской стороны)”, *Рус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pp.17-22.

36) 카흐타 조약의 2조, 3조, 6조, 8조, 9조, 10조에서 임의로 양국 간의 경계를 넘는 경우가해지는 처벌과 합법적으로 경계를 넘는 경우 및 절차에 대해서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Кяхтинский трактат...”, pp.17-22.

풀어와 그 문화는 양측을 이어주는 중요한 ‘접촉언어’였다.

Ⅲ. 카흐타와 마이마첸의 모습에 나타난 잡거

1727년 10월21일 58차례의 실무 협상 끝에 체결된 카흐타 조약은 러청 경계선을 정함과 동시에 양국의 공식적인 접촉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러시아 측 전권대사 라구진스키-블라디슬라비치(Рагузински-Владиславич, Савва Лукич)는 조약이 체결된 후 지체 없이 새로운 대청 접경지역에 요새와 상업지구의 건설을 지시했다. 부흐골츠(И. Д. Бухгольц) 대령이 이끄는 토볼스크 군인들은 카흐타 하천변의 무인지대에 석조 요새와 무역 타운을 거의 라구진스키의 원안대로 건설했다.³⁸⁾

일반적으로 카흐타라고 하면 국경무역을 수행하는 상업 마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곳이 청과의 공식적인 소통의 창구이고, 카흐타 조약이 정한 국경선의 기점이다 보니 무역 시설에 앞서 외교 및 군사 그리고 종교 시설이 필요했다. 그래서 라구진스키는 1727년 여름 성 삼위일체 기념일에 카흐타 하천변에 요새 건설을 명했고, 이 요새가 트로이츠코삽스크(Троицк осовск) 요새이다. 또한 전권대사는 요새 안에 정교 교회를 지을 것을 명했다.³⁹⁾ 러시아 정교회 기록에 따르면 1728년에 교회 건설이 시작되어 같

37) Jonathan D. Spence, *The Search for Modern China*, 김희교 역, 『현대 중국을 찾아서』1, 이산, 1998, 98쪽 참고; Thomas J. Barfield, *The Perilous Frontier: Nomadic Empires and China*, 윤영인 역, 『위태로운 변경. 기원전 221년에서 기원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 동북아역사재단, 2009, 588쪽 참고; Peter C. Perdue, *China Marches West :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Eurasia*, 공원국 역, 『중국의 서진. 청의 중앙유라시아 정복사』, 길, 2014, 215쪽 참고.

38) А. Р. Артемье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ородов и острогов Забай калья и Приамурья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VII- XVIII веке и типы оборонительных сооружений”, *Отечественная история* 5, Москва, 1998, p.143.

은 해 12월 18일에 축성예배를 드렸다.⁴⁰⁾ 정교회가 들어섰다는 것은 이곳이 러시아 영토라는 문화적 표시이었다. 즉 이곳 시베리아 남부 변경에서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똑 같은 종교 의식을 취한다는 것은 정교회 국가인 러시아가 이곳을 관할한다는 의미다. 1772년에 카흐타를 방문한 팔라스는 요새에 좋은 시계탑을 가진 꽤 멋진 목조교회가 있다고 언급한다.⁴¹⁾ 교회는 1812-17년에 석조 건물로 바뀌었고, 1830년대 파르신의 기록에 따르면 카흐타의 3개 교회 가운데 2개 교회가 트로이츠코삽스크에 있었는데 하나는 석조 건물인 트로이체 소보르이고, 다른 하나는 목조 건물로 세관 쪽에 위치한 니콜스키 교회였다.⁴²⁾

보통 카흐타라고 불렀던 상업 마을은 상인들이 거주하며 활동하는 공간이었다. 트로이츠코삽스크 요새에서 4베르스타(약 4.3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했고, 일반 걸음으로 요새에서 상업 마을까지 1시간 조금 넘게 걸렸다. 물론 여행기들을 보면 정부 관리들은 주로 마차를 이용해서 훨씬 빨리 이동했다. 상업 마을은 카흐타 조약이 체결된 다음 해인 1728년 말에 완성되었다. 대표적인 상업시설은 일종의 상관(商館)이라 할 수 있는 고스티니드보르(гостинный двор)인데 24개의 상점과 24개의 창고가 있었다. 그리고 당시 고스티니드보르 인근에는 32개의 상인 가옥이 들어서 있었다.⁴³⁾ 물론 상업 마을은 시간이 가면서 성장했다. 팔라스에 따르면 1772년

39) Н. Н. Бантъш-Каменски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е собрание дел между российским и китай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ами с 1619 по 1792 год*, Казань, 1882, p.157.

40) Иркутские епархиальные ведомости. 1863. №33 17 августа 1863 годв, p.25.

41) П. С. Паллас, *Путешествие...*, p.149.

42) В. П. Паршин, *Поездка в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p.76.

43) И. Ф. Попова, "Торговля России и Китая через Кяхту и Май май чен", *Mongolica-XI.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статей по монголоведению. Посвящается 13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А. В. Бурдукова (1883-1943)*, Петербург, 2003, p.29.

에 고스티니 드보르에 60개 정도의 상점이 있었고, 새로운 석조 건물을 짓기 위해 기초를 다지는 중이었다. 상업 마을은 목책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120채 가까운 목조 가옥이 있었다.⁴⁴⁾ 그러나 석조 고스티니 드보르의 건축은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고, 1842년에 와서야 오늘날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상업 마을에도 고스티니 드보르 동편에 목조 교회가 있었고 1810년 이르쿠츠크 지사 트레스킨은 이곳에서 청의 대표들을 초청해 함께 미사를 드리기도 했다.⁴⁵⁾ 고스티니 드보르 남쪽은 러청 국경이 있었고, 군인 막사, 국경 초소, 그리고 국경책임자의 관사가 있었다.⁴⁶⁾

카흐타 건너편 청의 국경도시는 오늘날 몽골의 알탄불라크인 마이마첸이었다. 마이마첸은 카흐타가 건설되고 난 후인 1730년에 건설이 시작되었고, 카흐타 상업 마을에서 불과 약 130-20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어 오히려 트로이츠크삼스크 요새보다 훨씬 가까웠다.⁴⁷⁾ 그러나 지척의 거리임에도 이곳은 청의 영토였고, 카흐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평면구조도 전형적인 중국 도시의 형태를 따랐다.⁴⁸⁾ 이곳에는 중국 상인들이 거주했고, 1770년대 기록에 따르면 도시 중앙에 천제(天帝)를 모시는 사당이 있어, 사당 내부에 공자의 상이 놓여 있었다.⁴⁹⁾ 그리고 도시 남쪽에는 몽골의 주요 종교인 라마교 사원이 있었는데 홈췌 보디-사도(Хомшин Бодди-Саддо)의 사원이었다. 라마교도들은 보디-사도가 세상이 끝날 때 나

44) П. С. Паллас, *Путешествие...*, pp.149-150.

45) Н. И. Трескин, “Журнал дружеского свидания...”, p.195.

46) А. Е. Мартынов, *Живопис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p.55.

47) И. Ф. Попова, “Торговля России и Китая...”, p.29; А. Е. Мартынов, *Живопис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p.59; В. П. Паршин, *Поездка в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pp.95-96 등 참고.

48) С. Б. Намсараева, “Миграции во Внутренней Азии цинского периода...”, p.39 참고.

49) Е. П. Силян, *Кяхта в XVIII веке...*, p.103.

타나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믿었다.⁵⁰⁾ 사실 마이마첸은 18-19세기에 청의 영토였으나, 문화적으로 몽골 지역이었다. 이곳 주민들에게는 라마교가 중요했고, 라마의 종교 축제는 이들의 공통된 자의식을 보여준다.⁵¹⁾ 마이마첸에도 상인 가옥들이 많았는데 1772년에 이곳을 방문한 팔라스는 200 채 미만의 목조 주택이 뽀뽀이 들어서 있었고, 간혹 대저택들이 눈에 띄게 솟아 있었다고 기록했다.⁵²⁾ 마이마첸에서는 상업 건물인 고스티니 드보르 같은 공동의 상업 시설이 아니라 개인 상인 주택이 주거와 상업 시설의 역할을 겸했다. 상인 주택에는 상인과 중복의 주거시설과 함께 상품을 보관하고 거래하는 상업시설물이 있었다.⁵³⁾

청과 러시아는 도시 건설 이전부터 국경을 넘는 문제를 엄격히 규정하려 했다. 카흐타 조약은 처음부터 교류보다는 경계를 긋기 위한 조약이어서, 카흐타와 마이마첸의 경비 역시 철저했다. 1772년경에 카흐타에는 문이 3개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 셀렝가 강 쪽으로, 다른 하나는 카흐타 하천이 있는 서쪽으로 나 있었고, 마지막 문은 남쪽에 위치해 마이마첸으로 연결되었다.⁵⁴⁾ 국경 부랴트 카자크들이 종족별로 4개의 연대를 구성해 도시의 수비와 경계를 맡았다. 이들은 도시에 설치된 초소에서 우회로들을 감시하고, 주변을 순회하며 중국 상품들이 몰래 이동하는 것을 막았다.⁵⁵⁾ 한편 카흐타 인근 국경 초소에서는 몽골 또는 부랴트 국경 수비대와 러시아 카자크 부대가 교대로 근무했다. 그들은 사브르(sabre), 활과 화살, 때로는 창 또는 카빈총으로 무장했고 의복은 모두 몽골식이었다. 파르쉬에 따르

50) А. Е. Живопис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p.62.

51) Ю. Г. Клапрот, “Замечания о китаийско-русской границе...”, pp.187-188.

52) П. С. Паллас, Путешествие..., pp.157-159.

53) П. С. Паллас, Путешествие..., p.157; А. Е. Мартынов, Живопис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p.60.

54) П. С. Паллас, Путешествие..., pp.149-150.

55) В. П. Паршин, Поездка в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p.85.

면 이들은 놀라운 시력과 명중 능력을 가져 도주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⁵⁶⁾ 독일 물리학자 에르만은 도시 수비대의 철통같은 경비로 카흐타 세관의 허락 없이는 마이마첸의 어떤 물건도 국경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⁵⁷⁾ 사각형 모양인 마이마첸에도 북쪽과 남쪽으로 망루를 가진 3개의 문이 나 있었고, 네 귀퉁이에는 감시 초소가 세워져 있었다. 도시 북쪽의 카흐타 방향 망루에서는 파수병들이 짐이 오가는 것을 감시했다.⁵⁸⁾ 도시의 방위는 50-100명의 몽골 국경 기병으로 구성된 초병들이 담당했다.⁵⁹⁾

이렇게 러시아 도시 카흐타와 중국 도시 마이마첸은 겉어서 오 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그 경계는 군사적으로 엄격히 구분되었고, 외형적으로 서로 다른 종족들이 살아가는 곳이었고, 명백히 서로 다른 문화가 대치되는 공간이었다. 카흐타는 정교회로 대표되는 문화였고, 마이마첸은 사실 공자의 사당보다는 라마교로 대표되는 문화였다. 한편 카흐타는 여느 접촉도시들과는 달리 인종 간의 생물학적 혼종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아니었다. 카흐타에는 남성들이 많았지만 여자들도 꽤 거주했고 카자크 수비대들은 가족과 함께 생활했다. 그러나 18-19세기 전반 많은 방문자들이 공통으로 언급하는 것처럼 마이마첸은 여자가 살지 않는 걸로 유명했다.⁶⁰⁾ 심지어 마이마첸의 책임자까지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었다.⁶¹⁾ 클라프포트에 따르면 청 정부는 내지에서 여자를 다른 나라 땅은

56) В. П. Паршин, *Поездка в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 pp.86-87.

57) Д. Эрман, "Отрывки из дневника..." 14 июня 1832 г.

58) Ю. Г. Клапрот, "Описание Кяхты...", pp.1221-123.

59) Ю. Г. Клапрот, "Описание Кяхты...", p.123; А. Е. Мартынов, *Живопис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вне...*, p.61.

60) П. С. Пальяс, *Путешествие...*, p.170; Д. Эрман, "Отрывки из дневника..." 15 июня 1832 г. 등.

61) В. П. Паршин, *Поездка в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 p.95.

물론이고 국경으로도 못 데려가게 했다. 다만 부유한 자들은 몽골인 가운데 첩을 두었는데, 첩들은 도시 밖의 유르트에서 거주했다.⁶²⁾ 따라서 카흐타-마이마첸을 통한 인종 간 혼종은 많지 않았고 있었다고 해도 공공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차이도 컸고, 인종 간 혼종 가능성도 희박했지만 카흐타와 마이마첸은 서로 소통하고, 타협이 이루어지는 접촉지대였다. 먼저 두 도시의 명칭에서부터 다언어적 타협을 볼 수 있다. 카흐타(Кяхта)는 러시아어도 아니고 만주어도 아닌 몽골어 ‘히아그(хиаг)’에서 나온 말로 벼과 식물인 개밀이 우거진 곳이라는 뜻이다.⁶³⁾ 마이마첸은 사고파는 도시(買賣城)를 뜻하나 러시아인들은 그것을 ‘키타이 슬로보다’ 또는 몽골어로 ‘무역 슬로보다’⁶⁴⁾를 의미하는 나이마친(Най машин)으로 불렀다. 한편 몽골인들은 마이마첸을 부유한 곳이라는 뜻의 ‘다이-오에르고(Дай -Оерго)’로 불렀고, 만주인은 무역하는 도시라는 뜻으로 ‘하달친(Хадалчин)’이라 불렀다.⁶⁵⁾ 이렇듯 다양한 호칭 자체가 카흐타와 그 대응도시 마이마첸의 잡거의 모습을 보여 준다.

카흐타는 러시아 국가와 청 국가 사이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건설된 접경공간이었다. 러청은 거대한 국경선을 획정하면서, 먼저 양국 간의 사소한 정치 문제를 해결할 장소가 필요했고, 거기에 러시아 측이 요구한 상인들의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래서 카흐타는 상업 지역이면서도 늘 정치적 중요성을 갖는 국경도시였다. 라구진스키가 카흐타 조약을 체결한 이후 카흐타는 러청 두 제국의 정치적 소통의 창구로 중요한 기능을 했다.

62) Ю. Г. Клапрот, “Описание Кяхты...”, p.126.

63) И. Ф. Попова, “Торговля России и Китая...”, p.28.

64) 슬로보다(слобода)는 자유민들의 거주지, 요새 밖의 거주지라는 뜻이다.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Брокгауза и Ефрона*, Т.30, Петербург, 1900, p.373.

65) П. С. Паллас, *Путешествие...*, p.155.

실제로 카흐타 조약은 러청 간의 필요한 업무를 위해 국경을 넘는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카흐타 길을 거치도록 규정했다.⁶⁶⁾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과 전령들이 국가 간 공식문서를 가지고 카흐타를 방문했다. 예를 들어 1767년에 카흐타 추가조약을 위한 협상에서도 러시아 대표 크로포토프(И. И. Кропотков)와 중국 대표 반(ван)⁶⁷⁾은 카흐타에서 회담을 진행했고,⁶⁸⁾ 1810년 이르쿠츠크 지사 트레스킨은 러청 간 대사 교환 문제로 카흐타에서 청 대표 윤덴도르쥬(Юндендорж)와 만났다.⁶⁹⁾

러시아 정부는 카흐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을 펼쳤다. 1743년에 러시아 원로원은 카흐타를 무역 슬로보다로 승격함으로써, 카흐타는 안정적인 국경 거점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또한 시베리아 주와 이르쿠츠크 지역에서 상인 100가족을 자원 받아 카흐타로 이주시키라는 명령이 내렸고, 이주자에게는 5년 간 인두세와 군역을 면제해 주었다.⁷⁰⁾ 1745년에 원로원은 추가로 모스크바 주, 카잔 주, 아르한겔스크 주, 시베리아 주 주민 가운데 상인 및 농민 100가족을 그들이 원하는 경우 카흐타에 이주시키도록 했다.⁷¹⁾ 그리고 1761년에는 카흐타에 정착해서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사는 주민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지 말도록 명령했다.⁷²⁾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조치는 카흐타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다.

66) “Кяхтинский трактат...”, p.20.

67) 반은 러시아어로 공후(князь), 한국어로 왕(王)을 뜻함.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Брокгауза и Ефрона*, T.5a, p.498 참고.

68) А. Н. Хохлов, “Кяхтинская торговля...”, p.108.

69) А. И. Петров, “Китай цы в Кяхте”, p.4.

70)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Собрание первое с 1649 г. по 12 декабря 1825 г. (이하 ПСЗ로 약함) T.11. Петербург, 1830, № 8833.

71) ПСЗ, T.12, № 9206.

72) ПСЗ, T.12, № 11322.

그러나 카흐타의 발전은 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조약을 주도한 청 정부에게 처음부터 교역보다는 정치적 문제가 중요했다. 특히 자신이 정복한 할하몽골을 대외적으로 확고히 병합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했다.⁷³⁾ 러시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청과의 교역을 원했지만 카흐타를 통한 러시아 개인 상인들의 교역 증가를 위해서라기보다, 국영 카라반의 대중국 무역 독점으로 국고 수입을 늘리는 데 골몰했다. 카흐타 조약 당시 러시아 전권대사 라구진스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러시아에 유리한 국경선을 정하는 것이었지만, 또 다른 임무는 사무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 카라반의 발전 방안을 보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네르친스크 조약 이후 전개된 다양한 개인 상인들의 밀무역이 러시아 정부의 카라반 무역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음이 드러났다.⁷⁴⁾ 실제로 제3차 국영 카라반이 먼 여행 끝에 1731년 북경에 입성했지만 이미 그곳에는 시베리아에서 영업하는 개인 상인들이 밀무역을 통해 공급한 값싼 모피들로 넘쳐났던 것이다.⁷⁵⁾

표트르 대제는 이미 1706년에 개인 상인들이 정부에서 발행한 여행증 없이 중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만일 이를 어기고 상품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무역을 하면 가차 없이 사형에 처하도록 지시했다.⁷⁶⁾ 그러나 이러한 차르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진 광활한 시베리아에서 개인 상인들의 무역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개인상의 무역을 일정 정도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대신 가장 중요한 품목인 모피 거래만큼은 엄격히 통제하는 정책을 폈다.⁷⁷⁾ 그

73) В. С. Мясников, *Договорными статьями утвердили..*; p.188. А. Н. Хохлов, “Кяхтинская торговля...”, p.101.

74) Е. П. Силин, *Кяхта в XVIII веке..*; pp.28-29.

75) Е. П. Силин, *Кяхта в XVIII веке..*; p.47.

76) Памятники сибирской истории XVIII века, Кн.1. 1700-1713, Петербург, 1881, p.278.

러나 개인상은 계속해서 밀무역에 이용해 중국에 모피를 판매했고, 러시아 정부는 1739년에 다시 러시아인들에게 청과 청에 예속된 다른 곳에서도 모피를 팔지 못하도록 칙령을 발표했다.⁷⁸⁾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모피 독점은 성공하지 못했고, 1755년 국영 카라반이 실패한 이후 수익성이 떨어진 카라반을 더 이상 조직할 수 없었다.⁷⁹⁾ 결국 개별 상인들의 활발한 교역의 욕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1760년대 이후 러시아 정부는 경제정책에서 국가 독점을 완화하고, 자유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⁸⁰⁾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자유무역 기조는 특히 기득권 세력이 약했던 변방에서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다양한 부류의 시베리아 상인들은 카흐타에서 자리를 잡고 청 상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무역을 확대해 갔다.⁸¹⁾ 이렇게 카흐타의 성공에서 정부의 의지보다는 민간 차원의 활동이 결정적이었다.

카흐타의 초기 거주자들은 국경 관리, 러시아 군인 등 주로 봉직자들이었고, 땅을 경작하는 농민들도 있었다.⁸²⁾ 그러나 점차 다양한 부류의 상인들이 카흐타의 주인공이 되었다. 카흐타의 주민 수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없다. 19세기 중엽에 출판된 세묘노프의 <<러시아 제국의 지리통계 사전>>에 따르면 그 인구는 1829년에 326명, 1852년에 594명, 1862년에 519명에 불과했다.⁸³⁾ 물론 이는 카흐타에 등록된 주민 수이며, 실제로 도

77) РСЗ, Т.7, № 4992.

78) РСЗ, Т.10, № 7895.

79) Е. П. Силин, *Кяхта в XVIII веке*..., p.51.

80) 18세기 후반 러시아의 자유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박지배, 「18세기 후반 예카테리나 정부의 중농사상과 무역정책」 『역사문화연구』 51, 2014.

81) 실린은 카흐타 무역의 본격적인 시작은 국영 카라반이 폐지된 1755년부터로 본다. Е. П. Силин, *Кяхта в XVIII веке*..., p.51.

82) А. Н. Хохлов, “Кяхтинская торговля...”, pp.104-105 참고.

83) П. Семенов, *Географическо-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Т.2, Петербург, 1865, p.896.

시에서 무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았다. 러시아와 청 두 제국에서 온 수많은 상인들이 카흐타를 오갔다. 예를 들어 1730년 마지막 석 달간 트로이츠크코삽스크를 통해 러시아 방면에서 짐을 싣고 카흐타로 들어 온 상인들만 453명에 달했다.⁸⁴⁾ 1805년 마르티노프에 따르면 카흐타에는 다종족 상인들로 분주했다. 모스크바, 카잔, 쿠르스크 등 유럽러시아에서 온 상인, 시베리아의 타타르 상인, 부하라 상인, 부랴트 상인, 몽골 상인, 통구스 상인, 다른 많은 상인들이 카흐타로 몰려왔다. 19세기 초 카흐타 강 쪽으로 나 있는 문 밖에는 부랴트 상인들을 위한 천막촌이 있었다. 이들은 다른 상품들과 교환하기 위해 가축 떼를 몰고 왔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펠트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머물렀다.⁸⁵⁾

마이마첸의 주민들도 카흐타와 유사했다. 이곳에도 질서를 위해 관리와 수비대가 상주했고, 상인들과 그 일꾼들이 거주했다. 농민들은 마이마첸에 사는 중국인들 가운데 가장 가난했는데 파르쎌은 이들이 매우 훌륭한 농부라고 기록했다.⁸⁶⁾ 1770년대 마이마첸에는 상인, 관리, 일꾼, 그리고 몽골 기병들이 거주했고, 주민 수는 약 400명 정도였지만, 상인들이 몰려오면 약 1천명 혹은 그 이상도 모였다.⁸⁷⁾ 마이마첸으로도 다양한 상인들이 드나들었다. 18세기 후반의 기록을 보면 중국 상인, 부하라 상인, 몽골 상인들은 상품을 수레 또는 낙타에 싣고 왔다.⁸⁸⁾ 특히 부하라 상인들은 가을

84) A. H. Хохлов, “Кяхтинская торговля...”, p.105.

85) A. E. Мартынов, *Живопис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p.56.

86) В. П. Паршин, *Поездка в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p.95.

87) A. H. Хохлов, “Кяхтинская торговля...”, p.106; С. Б. Намсараева, “Миграции во Внутренней Азии цинского периода...”, p.40.

88) М. Д. Чулков, *Историческое описание российской коммерции при всех портах и границах от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ыне настоящего и всех преимущественных узаконений по оной императора Петра Великого и ныне благополучно царствующей государыни императрицы Екатерины Великия*, Т.3, Кн.1, Петербург, 1785, pp.84-85.

이면 먼 곳에서 대황을 잔뜩 실은 30-50마리의 낙타 카라반을 구성해 마이마첸으로 왔다. 러시아 정부가 1731년 대황을 국가 독점 품목으로 지정하고, 대황 거래를 카흐타로 단일화했기 때문이다.⁸⁹⁾ 그러나 마이마첸의 대표 상인은 산시(山西) 출신으로 주로 마이마첸에 정착해 살았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대몽골 무역을 해 온 상인들로 특별히 여몽상(旅蒙商)이라 부르는 무역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⁹⁰⁾ 이들은 주로 카흐타 무역의 핵심 상품인 중국의 차를 거래했다.

IV. 카흐타의 접촉방식과 혼종성(국가 간 대면과 민간 교류의 비교)

러칭 국경도시 카흐타를 통해 전개된 두 제국 사이의 교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먼저 카흐타는 양국 사이의 중요한 정치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접경공간이었다. 1727년 카흐타 조약, 1768년 카흐타 추가 조항, 1810년 양국 간 대사 설치 등 많은 중요한 회담들이 카흐타에서 열렸다. 다른 한편으로 카흐타는 민간 교류의 장이기도 했다. 카흐타의 실질적 기능은 러칭 주민 간 무역이었고, 교역은 양국 간의 상호관계를 촉진시키는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다. 카흐타와 마이마첸에 거주하는 양국 영토의 다종족 상인들은 서로의 일상으로 드나들면서 수시로 만나 장사를 하고, 삶을 공유하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상품뿐 아니라 언어와 문화를 나누었다. 이 장에서는 카흐타에서 있었던 러칭의 만남을 국가적 차원의

89) С. Б. Намсараева, “Миграции во Внутренней Азии цинского периода…”, pp.39-40.

90) 중국에서는 국경에서 무역하는 상인들을 여몽상(旅蒙商), 변상(邊商), 변객(邊客)이라 불렀는데 여몽상은 특히 몽골에서 무역하는 상인들을 지칭했다. И. Ф. Попова, “Торговля России и Китая…”, p.29.

만남과 주민들 간의 만남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먼저 19세기 전반에 기록된 여행기를 통해 카흐타에서 이루어진 정부 고위급 관리들의 몇 차례 만남을 살펴볼 수 있다. 만남의 모습이 비교적 상세히 남아 있는 대표적 기록은 이르쿠츠크 지사 트레스킨이 1810년 2-3월에 청측 우르가(오늘날의 울란바토르)의 국경책임자 반(Ван) 윤덴도르취(Юндендорж)와 암반(амбан)⁹¹⁾과 회동했던 모습이다. 당시 청 정부의 주도로 북경과 페테르부르크 간 대사 교환을 위한 협상이 진행 되었고, 트레스킨은 협상을 위한 만남의 모습에 대해 자세한 일기체 기록을 남겼다.

1810년 2월19일 트레스킨은 트로이츠크삽스크에 도착해 관사에 머물고 있었다. 같은 날 중국 측 대표 반(윤덴도르취)과 암반이 마이마첸으로 오고 있었는데 양측은 만남 전에 미리 사람들을 보내 서로에게 깃듯이 예를 갖추었고, 인사 온 사람들을 정중히 맞았다.⁹²⁾ 2월20일에는 마이마첸 국경책임자(дзаргучей)가 중국 상인들과 함께 트레스킨을 예방하여 예의를 갖추었고, 다음 날 중국 측 대표들이 도착하자 트레스킨은 통역 및 의장대와 함께 비서 벨라브스키(Белявский)를 보내 인사했다. 청측 대표들은 비서 일행을 정중히 맞았다.⁹³⁾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양측 대표들은 만나기 전부터 서로에게 자신의 친절함과 정중함을 보여줌으로써 만남을 준비했다.

이어 트레스킨은 직접 카흐타 관리들, 상인들 그리고 자신의 호위병들과 함께 청측 대표를 만나기 위해 마이마첸으로 향했다. 트레스킨 일행이

91) 윤덴도르취는 ‘반(ван)’이면서 ‘에푸(эпу)’였는데 에푸는 황제의 사위를 가리킨다. Рус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XIX веке. Материалы и документы, Москва, 1995, №10, Комментарий 2; 암반은 우르가의 만주인 통치자 직을 말한다. 1762년에 청 정부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열망을 보인 몽골인들에 대한 군사-정치적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암반 직을 신설했다. А. Н. Хохлов, “Кяхтинская торговля...”, pp.107-108.

92) Н. И. Трескин, “Журнал дружеского свидания...”, pp.167- 169.

93) Н. И. Трескин, “Журнал дружеского свидания...”, pp.170- 171.

마이마첸에 도착하자 7발의 예포가 울렸고, 청측 대표가 머무는 곳까지 가는 동안 문마다 격식을 갖춘 환대가 있었다. 첫 번째 문에서 반과 암반의 측근 관리들이 나와 있었고, 두 번째 문에서 가장 높은 관리 둘이 트레스킨을 맞이했다. 그리고 트레스킨이 세 번째 마지막 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서자 영접실이 나왔고 거기서 반과 암반이 직접 나와 인사를 나누었다. 양측은 정중한 말과 진심어린 즐거움의 감정을 설명했는데, 이는 선 채로 15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인사말이 끝나고 양측은 손을 마주 잡았고, 청중들이 보는 앞에서 포옹을 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야 청측 대표들은 트레스킨을 방으로 안내했다.⁹⁴⁾ 다음 날 아침 반과 암반은 관리들을 트레스킨에게 보내 어제 있었던 만남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고, 건강에 대한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반과 암반이 아침에 트레스킨을 방문하고 싶다고 전했다. 트레스킨은 청측 일행에게 반과 암반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주었고, 비서와 관리들과 함께 의장대를 급파하여 탈 것을 보냈다. 이들은 반과 암반을 마차에 태워 트레스킨의 거처로 안내했다.⁹⁵⁾

언급한 만남은 매우 정중하다. 그러나 이러한 예의 대 예의의 대결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상호 이질감이 느껴진다.⁹⁶⁾ 어색한 모습은 특히 트레스킨과 중국 대표들의 식사 자리에서 더 분명히 나타난다. 2월27일에 이들은 트레스킨이 머무는 트로이츠코삽스크의 관사에서 함께 식탁에 앉았다. 유럽식으로 가수들의 합창과 음악이 흘러나왔고, 등장한 요리는 모두 러시아 상류층의 음식이었다. 그러나 반과 암반은 모든 것에 무척 생소해 했다. 그들은 어떻게 식기를 사용하여 음식을 집는지 몰랐고, 러시아 식 서비스에도 익숙지 않았다. 따라서 러시아 관리들이 요리를 손님 접시

94) Н. И. Трескин, “Журнал дружеского свидания...”, p.171.

95) Н. И. Трескин, “Журнал дружеского свидания...”, p.174.

96) 1829년에 카흐타 세관장과 마이마이첸 사르구체이의 만남에 참석한 에르만도 상호 간에 예의가 각별하다고 언급한다. Д. Эрман, “Отрывки из дневника...” 16 июня 1832 г.

에 놓아주고, 어떤 요리인지 설명해 주며 그것들을 맛보게 했다. 이때 트레스킨은 반과 암반에게 중국에서 특별한 날에 황제의 건강을 위해 건배를 하는지 물었다. 반은 중국에서는 가까운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건배를 하지만, 황제의 건강을 위해 마시는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트레스킨은 러시아 황제의 건강을 위해 건배하는 러시아 관습을 얘기해주고 러시아와 청의 위대한 두 황제를 위해 건배할 것을 제의했다. 반과 암반은 서로를 보면서 트레스킨을 따라 의자에서 일어나 잔을 끝까지 비웠다. 그 다음에 서로의 건강을 위해 건배를 나누었다. 통역이 반의 만주어 건배사를 러시아어로 통역해 주었다.⁹⁷⁾ 카흐타가 세상에 출현한지 80년이 넘었지만 양국 대표의 만남은 여전히 어색했고,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분위기였다.

그로부터 20년 지난 후에 정교회 사제이자 동방학자인 비추린이 목격한 연회의 상황도 비슷했다. 비추린은 1830년 8월22일 아침에 카흐타에 도착했고, 같은 날 오후에 바스닐라(Баснила)라는 상인의 집에서 몽골 왕공과 가진 연회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했다. 몽골 왕공은 국경을 넘은 러시아인들을 반환하기 위해 당시 카흐타에 머물던 쉘링그(Шиллинг) 남작을 만나러 왔다. 주인은 공후 일행을 응접실로 안내했고, 의자에 앉도록 권했다. 손님들은 모두 모자를 쓰고 있어, 그들에게 모자를 벗을 것을 요청했다. 몽골 공후 일행은 머리를 보이는 것은 큰 실례라며 한사코 마다했다.⁹⁸⁾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비추린은 놀람의 연속이었다. 한편 몽골 공후는 주인과는 오랫동안 아는 사이인양 통역을 통해 격의 없이 얘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쉘링그 남작이 일행과 함께 합류했다. 공후는 그들에게 담배를 권했는데 비추린은 아마도 중국인들에게 담배를 권하는 것이 친근함의 표시일 거라 생각했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차가 먼저 나

97) Н. И. Трескин, “Журнал дружеского свидания...”, pp.197-198.

98) 독일인 동방학자인 클라프로트 역시 중국인, 만주인, 그리고 몽골인들은 중요한 자리에서 결코 모자를 벗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Ю. Г. Клапрот, “Описание Кяхты...”, p.133.

왔고, 다음으로 소테른(프랑스 포도주)이 제공되었고, 그리고 나서 리큐르주가 나왔다. 몽골 공후 일행은 술을 모두 받았으나, 마시지는 않았다.⁹⁹⁾

주인은 오후 2시경에 손님들을 식탁으로 초대했다. 식탁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색했다. 대화를 시작하거나 계속 이어갈 분위기는 아니었고, 중국인들은 중국어로 자기들끼리 많은 말을 했다. 여기서도 음식은 러시아식으로 나왔고, 몽골 공후 일행은 유럽식 식사에 익숙지 않았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수저, 칼, 포크 등을 사용할 줄 몰랐다. 쾌활한 성격의 설린 그 남작은 분위기를 돋우려 공후에게 자신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다 분말이 들어 있는 물 두 잔을 가져와 하나로 합쳐 기포성 샴페인처럼 보이는 액체를 만들어 마셨다. 그때 마이마첸의 국경책임자가 식탁에서 잔을 집더니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말했다. 통역이 말해주는 바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포도주를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을 끝까지 마셔버렸고, 공후는 그 모습을 보고 웃었다. 여기서도 황제를 위한 건배가 등장했다. 사람들이 공후에게 마시는 이유를 설명해주자 공후는 일행과 함께 일어나 샴페인을 비웠다. 그리고 중국과 몽골의 통치자를 위한 두 번째 잔도 마찬가지로 비웠다. 남작은 자기 때문에 술을 두 잔이나 마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지만 손님들은 오래 앉아 있지 않고 자리를 뒀고, 마이마첸으로 돌아갔다. 준비를 위해 고생한 주인도 러시아 손님들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국경의 문들은 모두 일찍 잠겼고, 그 전에 귀가를 서둘러야 했기 때문이다.¹⁰⁰⁾ 이렇게 교류가 시작되고 100년이 넘는 상황에서도 고위층 인사들의 만남에서는 카흐타와 마이마첸의 도시 모습이 서로 이질적인 것처럼 여전히 어색함이 감돌았다.

99) Н. Я. Бичурин, *Ради вечной памяти*, pp.302-304.

100) Н. Я. Бичурин, *Ради вечной памяти*, pp.304-305.

그러나 카흐타와 마이마첸 주민들의 삶은 이와는 달랐다. 물론 그들에게도 똑 같이 밤이 되면 접경의 문은 굳게 닫혔고, 어느 쪽이든 상대가 밤까지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부랴트 수비대와 몽골 기병들이 국경을 지켰고,¹⁰¹⁾ 심지어 카흐타와 마이마첸의 책임자들도 예외 없이 밤에는 자신의 거처에 있어야만 했다.¹⁰²⁾ 그러나 이러한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낮 동안에는 카흐타와 마이마첸의 관리들과 주민들은 업무처리 뿐 아니라 개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유롭게 오갔고, 격의 없이 어울렸다.

러칭 국경은 서로 닫힌 공간이었지만, 카흐타와 마이마첸을 통해 연결되는 접촉의 공간이기도 했다. 엄격한 감시 체계 속에서도 카흐타와 마이마첸 간의 이동은 상당히 자유로웠다. 양측 상인들은 자유롭게 서로 넘나들 수 있었고, 상인이 아니어도 허가를 받으면 왕래가 가능했다.¹⁰³⁾ 그러나 이러한 왕래는 단지 낮 동안에만 가능했고, 해가 지면 국경의 문은 굳게 닫혔다.¹⁰⁴⁾ 해가 지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망루에서 북을 쳤고, 신호용 권총을 쏘았다. 신호가 들리면 양측 주민들은 서둘러 국경을 넘어 자국 영토로 돌아가야 했다. 독일인 에르만은 카흐타에서 해질 무렵 갑자기 중국 상인들이 서둘러 마이마첸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했다. 에르만이 다가서자 중국인들은 손으로 마이마첸을 가리키며 ‘포술(пошёл-어서, 빨리)’이라고 외쳤다.¹⁰⁵⁾

정부 관리 중에서도 하급 관리에 속하는 카흐타와 마이마첸의 국경책임자들은 서로 친밀하게 왕래했다. 1805년에 클라프로트는 마이마첸의 국경

101) В. П. Паршин, *Поездка в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 pp.86-87; Д. Эрман, “Отрывки из дневника...” 14 июня 1832 г.

102) А. Е. Мартынов, *Живопис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p.61.

103) В. П. Паршин, *Поездка в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 pp.94-96 참고.

104) Н. Я. Бичурин, *Ради вечной памяти*, p.305 참고.

105) Д. Эрман, “Отрывки из дневника...” 14, 15 июня 1832 г.

책임자는 카흐타 관리들과 서로 왕래한다고 언급했다.¹⁰⁶⁾ 1830년대 파르슨의 기록에서 마이마첸의 국경책임자는 카흐타 세관담당관(директор)을 수시로 방문한다고 기록했다. 이들은 업무 차 다녀가기도 했지만, 특별한 일 없이 단순히 놀러 오기도 했다. 이들은 보통 몽골 기병이나 카자크 호위대와 함께 움직였고 몽골어 또는 만주어 통역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다.¹⁰⁷⁾ 특히 러시아 차르의 기념일에는 마이마첸의 국경책임자가 카흐타에 와서 함께 어울렸다. 이때도 어김없이 차르의 건강을 비는 건배사가 진행될 때 중국 측 책임자와 그의 무리들은 존경심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러시아 관리 및 주민들과 함께 만세를 외쳤고, 흥이 나서 자신의 잔을 위로 들어 올렸다. 파르슨은 중국인들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에 기분이 매우 좋았다고 기술했다.¹⁰⁸⁾

러시아와 청의 상인들은 무역시즌이면 무역 업무로 카흐타와 마이마첸을 자주 오갔다. 이들은 매우 진지하게 사업에 임하는 냉정한 사업가들이었다. 특히 중국의 산시 상인들은 단합이 잘 되어, 엄격한 지침에 따라 거래를 수행했다.¹⁰⁹⁾ 그러나 사업은 사업이고 일상에서 러시아 상인과 중국 상인들 간의 우정은 여러 해 동안 끈끈하게 맺어졌다. 1770년대 팔라스의 기록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 카흐타의 벗에게 협력했다. 특히 카흐타에는 물이 부족했고, 수질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 상인들은 호의로 카흐타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샘에서 깨끗한 물을 길게 했다.¹¹⁰⁾ 1805년에 마르티노프는 러시아인들은 중국인들과 친하게 지내며, 카흐타 주민과 마이마첸 주민들은 서로 자주 방문한다고 전한다.¹¹¹⁾ 1830

106) Ю. Г. Кляпрот, “Описание Кяхты…”, p.132.

107) В. П. Паршин, *Поездка в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p.85.

108) В. П. Паршин, *Поездка в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pp.84-85.

109) Е. П. Силин, *Кяхта в XVIII веке…*, p.113.

110) П. С. Паллас, *Путешествие…*, p.151.

년대의 기록에 보면 중국 상인들은 무역 업무 없이도 카흐타에 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곤 했다. 중국 상인들은 이집 저집 다니면서 담배를 피웠고, 러시아인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중국인들은 만일 주인이 바쁘더라도 개의치 않고 허물없이 스스로 알아서 행동했다. 러시아 상인들은 친하게 지내는 산시 상인들을 중국인을 의미하는 ‘키타이인’ 또는 한인을 의미하는 ‘니칸인’ 등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일상의 손님 아니면 친한 벗이라 불렀다.¹¹²⁾

양측의 주민들은 서로의 명절을 공유했다. 그러나 바이칼 남부에서는 역시 몽골의 풍습이 강했다. 특히 몽골 명절이자 동부 시베리아 일대의 주요 명절인 차강 사르(Цагаан Сар) 때는 카흐타와 마이마첸 두 도시 모두 축제분위기였다. 차강 사르를 축하하는 3일 간은 카흐타와 마이마첸 출입이 완전히 자유로웠다.¹¹³⁾ 에르만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단지 명절에만 마이마첸에서 밤을 보낼 수 있었다.¹¹⁴⁾ 카흐타 주민들은 마이마첸으로 몰려가 좁은 거리에 인파가 몰렸다. 먼저 명절을 기념하는 축포가 일곱 발 울렸고, 카흐타의 국경책임자와 세관담당관은 통역을 통해 공식적으로 마이마첸 국경책임자에게 축하인사를 전했다. 러시아 상인들도 친한 중국인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하며 명절을 축하했다. 마이마첸의 좁은 거리는 러시아인, 부랴트인, 몽골인, 만주인, 중국인 등으로 가득 찼다. 이들은 함께 거리에서 펼쳐지는 등불 장식, 불꽃놀이, 로켓, 화사한 꽃들을 구경했다. 또한 중국악사, 광대 등이 공연을 펼쳤다. 중국인들은 손님들을 즐겨 맞이했고, 마테이라, 샴페인 등을 성가실 정도로 제공했다.¹¹⁵⁾

111) А. Е. Мартынов, *Живопис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p.62.

112) В. П. Паршин, *Поездка в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 pp.94-95.

113) В. П. Паршин, *Поездка в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 p.87.

114) Д. Эрман, “Отрывки из дневника...” 15 июня 1832 г.

115) В. П. Паршин, *Поездка в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 pp.96-100.

카흐타와 마이마첸의 다종족 주민들 사이의 소통은 기본적으로 언어적 이해를 필요로 했다. 물론 러청 양측의 고위급 회동은 러시아어, 몽골어, 만주어에 능통한 통역관을 대동한 만남이었다. 예를 들어 이르쿠츠크 지사 트레스킨과 청의 국경책임자 반과 암반, 쉘린그 백작과 몽골 공후는 공식적인 회담뿐 아니라, 사적 만찬 등 만남이 있을 때마다 항상 통역을 대동했다.¹¹⁶⁾ 독일인 과학자 에르만이 참석한 카흐타 세관담당관과 마이마첸 국경책임자의 만남에서는 각각 러시아어-몽골어 통역관과 만주어-몽골어 통역관을 대동했다.¹¹⁷⁾ 그러나 국경도시의 일반 주민들은 소통에 필요한 언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했다. 필라스에 따르면 18세기 후반 마이마첸의 중국 상인들은 몽골어를 이해했고, 러시아인들은 직접 몽골어를 말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통역을 통해 대화했다.¹¹⁸⁾ 1805년에 러청 국경지역을 방문한 클라프로트 역시 중국인들이 몽골어를 매우 잘 말했다고 언급한다.¹¹⁹⁾ 그러나 러시아 상인들과 중국 상인들 간의 무역 거래와 일상의 소통에서 몽골어만으로는 부족했다. 따라서 카흐타와 마이마첸의 다양한 인종적 배경의 주민들은 공통으로 사용할 접촉언어(contact language)를 창조해야 했다.

여행기 또는 회고록 작가들 대부분은 마이마첸의 중국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발음이 이상한 러시아어로 얘기했다고 진술한다. 18세기 후반 필라스는 많은 중국 상인들이 러시아어로 말하나, 발음이 듣기 불편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런 결점은 러시아어를 쓰는 타타르, 몽골, 칼미크보다 심하다고 평가했다.¹²⁰⁾ 19세기 초 클라프로트도 중국 상인들이 무역 업무를

116) Н. И. Трескин, “Журнал дружеского свидания...”; Н. Я. Бичурин, *Ради вечной памяти*.

117) Д. Эрман, “Отрывки из дневника...” 16 июня 1832 г.

118) П. С. Паллас, *Путешествие...*, p.182.

119) Ю. Г. Клапрот, “Описание Кяхты...”, p.125.

직접 수행할 만큼 러시아어를 하지만 그들의 발음을 알아듣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¹²¹⁾ 1820년대 초 팀코프스키는 이러한 중국 상인들보다 만주와 몽골 사람들의 러시아어 발음이 훨씬 낫다고 평가했고,¹²²⁾ 1830년대 파르션은 중국인들의 러시아어는 카흐타 상인들만 알아듣는 러시아어라고 썼다.¹²³⁾ 이 언어를 여행가들은 ‘손상된(испорченное)’¹²⁴⁾, ‘야만적인’(варварский)¹²⁵⁾ 등으로 평하지만, 이는 문화 혼종의 대표적인 사례로 러시아어에 중국어가 혼종된 피진어였다.

카흐타 피진어를 사용하는 중국인들의 러시아어 발음은 카흐타에 처음 온 러시아인이 간신히 이해할 만큼 이상했다. 특히 중국인들은 러시아 자음 P(R) 발음을 전혀 못했고, 모두 Л(L)로 발음했다.¹²⁶⁾ 여행기에서 자주 언급되는 문구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лошка”는 “лошадь(말)”를 의미했고,¹²⁷⁾ “туа-зе-ти шиати мониза”는 “двадцать пять монет(25코페이카)”를 말했다.¹²⁸⁾ 또한 “Ка-ко ваша по-зо-ви?”는 “Как вас зовут?(이름이 뭐니까?)”를 의미했다.¹²⁹⁾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할만한 수준이었고, “Э-дин лю-дн бо-ли-ше-лэ”(Один человек пришел—한 사람이 왔다), “Ти-би, ду-ва-л гао-ху-да хо-ди?”(У тебя това

120) П. С. Паллас, *Путешествие...*, p.182.

121) Ю. Г. Клапрот, “Описание Кяхты...”, p.125.

122) Е. Ф. Тимковский, *Путешествие в Китай через Монголию в 1820 и 1821 годах*, Ч.1, Петербург, 1824, p.66.

123) В. П. Паршин, *Поездка в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p.94.

124) Е. Ф. Тимковский, *Путешествие в Китай*, p.66.

125) Д. Эрман, “Отрывки из дневника...” 14 июня 1832 г.

126) П. С. Паллас, *Путешествие...*, p.182.

127) Е. Ф. Тимковский, *Путешествие в Китай*, p.66.

128) Ю. Г. Клапрот, “Описание Кяхты...”, p.125.

129) В. П. Паршин, *Поездка в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p.94.

ры когда придут?—당신네 물건들 언제 들어오나?) “Э-ди-ка ду-ва-л я ня-на-ду”(Этого товара я (мне) не надобно—이 물건은 내게 필요 없다.) 등은¹³⁰⁾ 러시아인이라 해도 단번에 알아듣기 힘들었을 듯하다. 필자가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카흐타 피진어에 대한 전문적 분석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상인 입장에서 따라 하기 어려운 발음들을 포기해야 했던 것 같고, 러시아어의 무궁무진한 어미변화를 수용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다.

전반적으로 카흐타와 마이마첸을 통한 교류는 의사소통을 위한 접촉언어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이는 19세기 전반에 들어서 피진어라 할 만한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1820-21년 팀코프스키는 마이마첸의 산시 상인이 구사하는 러시아어에 대해 처음으로 ‘카흐타 러시아-중국어(Кяхтинское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е наречие)’라는 표현을 사용했다.¹³¹⁾ 이는 16세기 말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중심으로 중국 상인들과 접촉하면서, 포르투갈어의 크레올화가 진행되었고, 이후 광저우 지역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영어-중국어 피진어가 만들어진 것과 유사했다.¹³²⁾ 카흐타와 마이마첸의 접경인들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어휘재구화를 통해 접촉언어로서 카흐타 피진어를 탄생시킨 것이다. 카흐타 피진어는 대체로 어휘는 러시아 단어에, 문법은 중국어에 기반을 두었다.¹³³⁾ 즉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문법적 틀에 러시아어 단어를 대입해 얘기하면, 러시아인들이 전반적인 맥락으로 이해하는 구조였다. 물론 여기에 시베리아 원주민의 방언들도 개입하여 일부 어휘들이 포함되었다.

130) Н. Я. Бичурин, *Ради вечной памяти*, p.312.

131) Е. Ф. Тимковский, *Путешествие в Китай*, pp.183-184.

132) 팀코프스키는 셀렝가 강변에서 만난 인도 승려가 러시아어와 포르투갈어를 조금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Е. Ф. Тимковский, *Путешествие в Китай*, p.65.

133) Словари кяхтинского пиджина. Пер. с Китайского, Москва, 2017, pp.47-48.

V. 맺음말

카흐타와 마이마첸은 17세기 후반 러청 간의 오랜 충돌이 끝나고 1727년 카흐타 조약을 기반으로 세워진 국경도시이다. 두 도시 모두 카흐타 하천변의 무인지대에 남북으로 약 120-200미터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세워져 똑 같은 자연 조건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 건설이 진행되면서 두 도시의 외형적 모습은 서로 다른 문화적 조건으로 인해 점차 달라졌다. 카흐타는 러시아 차르가 통치하고, 러시아 정교회에 속한 공간이었다. 이와 달리 마이마첸은 청의 황제가 다스렸고, 라마교의 영적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이었다. 두 도시의 전반적인 평면 구조나 건물 양식, 그리고 사람들의 옷차림, 식생활 등 일상의 모습은 상당히 이질적이어서 상호 소통이 어려워 보이는 대치의 형국이었다. 국경의 감시 역시 삼엄해서 유럽 방문객이 보기도 물샬틈없이 보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흐타와 마이마첸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접경도시였고, 제국의 긴장이 완화되는 완충지대였고, 그 안에서 무역을 통해 교류가 이어지고, 일상의 다양한 접촉이 발생하는 접촉지대였다.

그러나 카흐타와 마이마첸의 접촉은 유럽인이 아메리카인과 조우할 때 있었던 권력의 비대칭 관계는 아니었다. 물론 국가 간의 협상을 진행하고, 관청 간의 급을 맞추는 데 있어서 청이 조금 더 많은 주도권을 행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불균형은 크지 않았고, 큰 틀에서 두 제국은 카흐타 조약으로 정한 국경선에서 엇비슷한 권력 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국경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두 제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돌과 투쟁이 아니라 배려와 이해가 필요했다. 따라서 러청 간 접경지역에서는 카흐타와 마이마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제적인 개종과 일방적인 영향보다는 상대 문화에 대한 인정과 필요에 의한 문화 수용이 주가 되었다. 이 때문에 카흐타 조약이 정한 3,200킬로미터에 달하는 러청 국경은 오랫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¹³⁴⁾

카흐타와 마이마첸을 통한 청과 러시아의 만남은 러청 접촉지대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먼저 양국 고위층들의 만남은 늘 통역을 대동해 진행되었고, 상당한 격식을 갖춘 모습이다. 그것은 고위층의 말과 행동이 황제의 위신 및 국가의 이익과 직접 관련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카흐타 조약이 체결되고 1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양국 고위층 간 만남의 자리는 매우 어색할 뿐 아니라 불편해 보이기까지 했다. 이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도 마치 이솝 동화의 여우와 두루미처럼 편치 않았고, 상호이해는 어렵게만 보였다. 반면에 접경주민들의 만남은 사뭇 달랐다. 이들의 모습은 자주 오가며, 열심히 일하고, 답소도 나누고, 명절이면 함께 축하하며 즐기는 이웃의 이미지가 가득했다. 이러한 사이에 중국의 차 음료는 이미 공통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문법 틀은 중국어, 어휘는 러시아어에서 차용한 카흐타어가 창조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접경의 접촉언어로 자리 잡았다.

한편 러청 접경지대에서 몽골의 역할이 중요했다. 두 제국 모두 몽골 문화에 친숙했고, 러시아의 식민지 바이칼 이남의 시베리아와 청의 점령지 할하몽골 모두 몽골문화가 강한 지역이었다. 몽골은 청과 러시아를 연결하고, 또한 긴장을 완화하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또한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시베리아인들과 몽골인들은 문화적 측면에서는 결코 수동적 식민지인들이 아니었다. 부랴트 부대와 몽골 기병은 접경의 질서를 유지했고, 몽골어는 카흐타어와 함께 러청을 연결하는 중요한 접촉언어였다. 또한 몽골의 명절 차강 사르는 접경지대에서 몽골인, 부랴트인, 통구스인뿐 아니라 러시아인, 만주인, 중국인을 아우르는 공동의 축제로 자

134) 러시아의 러청 국경 전문가 트카첸코에 의하면 카흐타 조약은 1911년까지 러청 국경선의 법적 근거로 작용했다. Б. И. Ткаченко, Россия - Китай : восточная граница в документах и фактах, 성종환 역, 『러시아-중국: 문서와 사실에 나타난 동부국경』, 동북아역사재단, 2010, 32쪽.

리 잡았다.

카흐타-마이마첸은 러청 간 국경지역이었고, 프랫이 말한바 전형적인 접촉지대였다. 카흐타를 도시 규모나 인구수에서 메트로폴리탄이라 부르는 어렵지만, 서로 다른 종족들이 잡거하고, 다른 문화가 혼종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메트로폴리탄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일종의 ‘식민지 경계’이기도 한 카흐타의 혼종은 극단적인 권력의 비대칭구조에서 이루어지는 않다. 물론 제국 간의 정치적 위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접경 주민들은 러시아인이든, 중국인이든, 몽골인이든 문화적 우월감보다는 일정한 균형감을 가졌고, 이웃처럼 적극적으로 접촉했다. 그 결과 러청 국경은 경계를 넘어 상호 접촉하는 접경공간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등록 인구가 500명 정도에 불과한 카흐타라는 작은 공간을 통해 어마어마한 물량의 상품이 교환되어 시베리아 곳곳으로 퍼져갔고, 대차길(the great tea road)이라는 유라시아 내륙의 변경을 잇는 무역로를 탄생시키며, 유라시아 각 지역 간의 교역과 접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다.

주제어 : 러청 접경, 카흐타 도시, 마이마첸, 접촉지대, 잡거와 혼종

(논문투고: 2019.06.05 / 논문심사완료: 2019.06.19 / 논문게재 확정일: 2019.06.19)

참고문헌

1. 1차 사료

Бантъш-Каменский , Н. Н.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е собрание дел между росийским и китаё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ами с 1619 по 1792 год*, Казань, 1882.

Бичурин, Н. Я. *Ради вечной памяти*, Чебоксары, 1991.

Клапрот, Ю. Г. “Описание Кяхты. (Из путешествий Г. Клапрота а.)”, *Сын отечества*, Ч.33, № 42, 1816.

Клапрот, Ю. Г. “Замечания о китаёско-русской границе, собранные Юлием Клапротом во время путешествия по одной в 1806 году”, *Северный архив*, Т.6, № 9-12, 1823.

Иркутские епархиальные ведомости. 1863. №33 17 августа 1863 года дв.

Мартьянов, А. Е. *Живопис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от Москвы до китаёской границы*, Петербург, 1819.

Памятники сибирской истории 18 века, Кн.1. 1700-1713, Петербург, 1881.

Паллас, П. С.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разным провинциям Ро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Ч.3-1, Петербург, 1788.

Паршин, В. П. *Поездка в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История города Албазина*, Ч.1-2, Москва, 1844.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в Ро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Собрание первое с 1649 г. по 12 декабря 1825 г., Петербург, 1830.

Семенов, П. *Географическо-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ро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Т.2, Петербург, 1865.

18세기-19세기 전반 러시아의 대중국 접경도시 카흐타의 잡거와 혼종

Рус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1689-1916. Официа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Москва, 1958.

Рус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XIX веке. Материалы и документы, Москва, 1995.

Тимковский, Е. Ф. *Путешествие в Китай через Монголию в 1820 и 1821 годах*, Ч.1, Петербург, 1824.

Трескин, Н. И. “Журнал дружеского свидания Иркутского гражданского губернатора, действительного статского советника Трескина, с китайскими пограничными правителями, ваном и амбаном с 19-го Февраля по 13 Марта 1810 года”, *Чтения в императорском обществе истории и древностей российских при Москов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овременное издание, 1860, январь-март, Кн.1, Москва, 1860.

Чулков, М. Д. *Историческое описание российской коммерции при всех портах и границах от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ыне настоящего и всех преимущественных узаконений по указу императора Петра Великого и ныне благополучно царствующей государыни императрицы Екатерины Великия*, Т.3, Кн.1, Петербург, 1785.

Эрман, Д. “Отрывки из дневника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а по Сибири”, *Северная пчела*, 14, 15, 16, 17, 18 и 19 июня 1832 г.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Брокгауза и Ефрона, Т.30, Петербург, 1900.

2. 연구서 및 논문

박민수, 「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 -호미 바바를 중심으로」 『인문학논

총』 39, 2015.

박지배, 「18세기 후반 예카테리나 정부의 중농사상과 무역정책」 『역사문화연구』 51, 2014.

박지배, 「17세기 중반 러시아의 동북아진출과 ‘나선정벌’의 의미」 『역사학보』 240, 2018.

설병수, 「크레올화(Creolization), 그 다층적 맥락 읽기」 『아프리카연구』 27, 2010.

Артемьев, А. Р.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ородов и острогов Забайкалья и Приамурья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VII–XVIII веке и типы оборонительных сооружений”, *Отечественная история* 5, Москва, 1998.

Доржиева, Т. С. “Чайный пу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Бурятии: история и топонимия”, *Вестник Буря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0, 2009.

Единархова, Н. Е. “Кяхтинская торговля в 40–60-е гг. XIX в. и ее влияние н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оссии, Монголии и Китая : по русским архивным и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источникам”, Диссер. канд. ист. наук, Москва, 1978.

Единархова, Н. Е. “О чае и чайной торговле”, *Земля Иркутская* 5, 1996.

Кожухарь, А. И. “Влияние российской чайной торговли с Китаем и Монголией на повседнев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 века”, Диссер. канд. ист. наук, Иркутск, 2015.

Курц, Б.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монополия в торговле с Китаем*, Киев,

1929.

Мясников, В. С. *Договорными статьями утвердил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русско-китайской границы XVII-XX вв.*, Хабаровск, 1997.

Намсараева, С. Б. “Миграции во Внутренней Азии цинского периода: диаспоры Кантактной зоны Кяхта-Май мацен”, *Вестник Буря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Гуманит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нутренней Азии* 1, 2013.

Носков, И. А. Кяхта. *О кяхтинской торговле чаем*, Иркутск, 1861.

Петров, А. И. “Китайцы в Кяхте”, *Вестник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1, 2009.

Попова, И. Ф. “Торговля России и Китая через Кяхту и Маймацзэн”, *Mongolica-XI.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статей по монголоведению. Посвящается 13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А. В. Бурдукова (1883—1943)*, Петербург, 2003.

Силин, Е. П. *Кяхта в XVIII веке. Из истории русско-китайской торговли*, Иркутск, 1947.

Словари кяхтинского пиджина. Пер. с Китайского, Москва, 2017.

Соколов, И. А. *Чай и чайная торговля в России: 1790—1919 гг.*, Москва, 2012.

Субботин, А. П. *Чай и чайная торговля в России и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ах*, Петербург, 1892.

Ткаченко, Б. И. *Россия - Китай : восточная граница в документах и фактах*, 성종환 역, 『러시아-중국: 문서와 사실에 나타난 동부 국경』, 동북아역사재단, 2010.

Трусевиц, Х. *Посольские торговые сношения России с Китаем до*

XIX века, Москва, 1882

Фильшин, Н. Г. “Кяхта и северный маршрут Великого чайного пути”, *Вестник Буря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а 2, 2017.

Хохлов, А. Н. “Кяхтинская торговля и ее место в политике России и Китая (20-е годы XVIII в. - 50-е годы XIX в.)”, *Документы опровергают. Против фальсификации истории русско-кита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осква, 1982.

Abu-Lughod, Janet L. *Before European Hegemony: The World System A.D. 1250-1350* 박홍식, 이은정 역, 『유럽패권이전 13세기 세계체제』, 까치, 2006.

Barfield, Thomas J. *The Perilous Frontier: Nomadic Empires and China*, 윤영인 역, 『위태로운 변경. 기원전 221년에서 기원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 동북아역사재단, 2009.

Braudel, Fernand. *Civilisation matérielle, économie et capitalisme, XVe-XVIIIe siècle*. 주경철 역,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1-2. 일상생활의 구조 下, 까치, 1995.

Burke, Peter. *Cultural Hybridity*, 강상우 역, 『문화 혼종성』, 이음, 2012.

Godfrey, Brian J. “Reviewed Work: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by Mary Louise Prat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3, 3, 1993.

Lorimer, Douglas A. “Reviewed Work: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by Mary Louise Pratt”, *Journal of Modern History* 68(2), 1996.

Perdue, Peter C. *China Marches West :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18세기-19세기 전반 러시아의 대중국 접경도시 카흐타의 잡거와 혼종

Eurasia, 공원국 역, 『중국의 서진. 청의 중앙유라시아 정복사』, 길, 2014.

Pratt, Mary Louise. “Arts of Contact Zone”, *Profession* 91, 1991.

Pratt, Mary Louise.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김남혁 역, 『제국의 시선. 여행기와 문화횡단』, 현실문화, 2015.

Sara Mills, “Review of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by Mary Louise Pratt”,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20, 4, 1994.

Spence, Jonathan D. *The Search for Modern China*, 김희교 역, 『현대 중국을 찾아서』1, 이산, 1998.

Twitchett, Denis and Fairbank John K. ed.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9, Cambridge, 2008.

Reference

1. Primary Sources

- Бантъш-Каменский , Н. Н.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е собрание дел между росийским и китаѣ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ами с 1619 по 1792 год*, Казань, 1882.
- Бичурин, Н. Я. *Ради вечной памяти*, Чебоксары, 1991.
- Клапрот, Ю. Г. “Описание Кяхты. (Из путешествий Г. Клапрота а.)”, *Сын отечества*, Ч.33, № 42, 1816.
- Клапрот, Ю. Г. “Замечания о китаѣско-русской границе, собранные Юлием Клапротом во время путешествия по одной в 1806 году”, *Северный архив*, Т.6, № 9-12, 1823.
- Иркутские епархиальные ведомости*. 1863. №33 17 августа 1863 года дв.
- Мартынов, А. Е. *Живопис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от Москвы до китаѣской границы*, Петербург, 1819.
- Памятники сибирской истории 18 века*, Кн.1. 1700-1713, Петербург, 1881.
- Паллас, П. С.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разным провинциям Ро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Ч.3-1, Петербург, 1788.
- Паршин, В. П. *Поездка в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История города Албазина*, Ч.1-2, Москва, 1844.
-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в Ро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Собрание первое с 1649 г. по 12 декабря 1825 г., Петербург, 1830.
- Семенов, П. *Географическо-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ро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Т.2, Петербург, 1865.

18세기-19세기 전반 러시아의 대중국 접경도시 카흐타의 잡거와 혼종

Рус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1689-1916. Официа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Москва, 1958.

Рус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XIX веке. Материалы и документы, Москва, 1995.

Тимковский, Е. Ф. *Путешествие в Китай через Монголию в 1820 и 1821 годах*, Ч.1, Петербург, 1824.

Трескин, Н. И. “Журнал дружеского свидания Иркутского гражданского губернатора, действительного статского советника Трескина, с китайскими пограничными правителями, ваном и амбанем с 19-го Февраля по 13 Марта 1810 года”, *Чтения в императорском обществе истории и древностей российских при Москов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овременное издание, 1860, январь-март, Кн.1, Москва, 1860.

Чулков, М. Д. *Историческое описание российской коммерции при всех портах и границах от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ыне настоящего и всех преимущественных узаконений по указу императора Петра Великого и ныне благополучно царствующей государыни императрицы Екатерины Великия*, Т.3, Кн.1, Петербург, 1785.

Эрман, Д. “Отрывки из дневника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а по Сибири”, *Северная пчела*, 14, 15, 16, 17, 18 и 19 июня 1832 г.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Брокгауза и Ефрона, Т.30, Петербург, 1900.

2. Books and Articles

Артемьев, А. Р.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ородов и острогов Забайкалья

- и Приамурья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VII–XVIII веке и типы оборонительных сооружений”, *Отечественная история* 5, Москва, 1998.
- Доржиева, Т. С. “Чайный пу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Бурятии: история и топонимия”, *Вестник Буря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0, 2009.
- Единархова, Н. Е. “Кяхтинская торговля в 40–60-е гг. XIX в. и ее влияние н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оссии, Монголии и Китая : по русским архивным и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источникам”, Диссер. канд. ист. наук, Москва, 1978.
- Единархова, Н. Е. “О чае и чайной торговле”, *Земля Иркутская* 5, 1996.
- Кожухарь, А. И. “Влияние российской чайной торговли с Китаем и Монголией на повседнев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 века”, Диссер. канд. ист. наук, Иркутск, 2015.
- Курц, Б.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монополия в торговле с Китаем*, Киев, 1929.
- Мясников, В. С. *Договорными статьями утвердил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русско-китайской границы XVII–XX вв.*, Хабаровск, 1997.
- Намсараева, С. Б. “Миграции во Внутренней Азии цинского периода: диаспоры Кантактной зоны Кяхта–Маймачен”, *Вестник Буря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Гуманит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нутренней Азии* 1, 2013.
- Носков, И. А. Кяхта. *О кяхтинской торговле чаем*, Иркутск, 1861.

- Петров, А. И. “Китай цы в Кяхте”, *Вестник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1, 2009.
- Попова, И. Ф. “Торговля России и Китая через Кяхту и Май май чен”, *Mongolica-XI.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статей по монголоведению. Посвящается 13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А. В. Бурдукова (1883—1943)*, Петербург, 2003.
- Силин, Е. П. *Кяхта в XVIII веке. Из истории русско-китайской торговли*, Иркутск, 1947.
- Словари кяхтинского пиджина. Пер. с Китайского, Москва, 2017.
- Соколов, И. А. *Чай и чайная торговля в России: 1790—1919 гг.*, Москва, 2012.
- Субботин, А. П. *Чай и чайная торговля в России и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ах*, Петербург, 1892.
- Ткаченко Б. И. *Восточная границ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в документах и фактах*, Владивосток, 2010.
- Трусевич, Х. *Посольские торговые сношения России с Китаем до XIX века*, Москва, 1882
- Фильшин, Н. Г. “Кяхта и северный маршрут Великого чайного пути”, *Вестник Буря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а 2, 2017.
- Хохлов, А. Н. “Кяхтинская торговля и ее место в политике России и Китая (20-е годы XVIII в. - 50-е годы XIX в.)”, *Документы опровергают. Против фальсификации истории русско-кита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осква, 1982.
- Эйвери, Марта. *Чайный путь. Китай и Россия встречаются через степь*. Пер. с англ. А. Гилевича, Москва, Beijing, 2005.

- Abu-Lughod, Janet L. *Before European Hegemony : the World System A.D. 1250-1350*, New York, 1989.
- Barfield, Thomas J. *The Perilous Frontier: Nomadic Empires and China*,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2.
- Braudel, Fernand, *Civilisation matérielle, économie et capitalisme, XVe-XVIIIe siècle. tome 1, Les structures du quotidien: le possible et l'impossible*, Paris, 1979.
- Burke, Peter, *Cultural Hybridity*, Cambridge, 2009.
- Godfrey, Brian J. "Reviewed Work: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by Mary Louise Prat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3, 3, 1993.
- Lee, Chinyun. "From Kiachta to Vladivostok: Russian Merchants and the Tea Trade", *Region: Regional Studies of Russia,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3(2), 2014.
- Lorimer, Douglas A. "Reviewed Work: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by Mary Louise Pratt", *Journal of Modern History* 68(2), 1996.
- Pak, Chibae, "18segi Huban Yek'at'erina Chõngbuüi Chungnongsasangwa Muyõkchõngch'aek", *Yõksamunhwayõngu*, vo. 51, 2014.
- Pak, Chibae, "17segi Chungban Nõsiaüi Tongbugajinch'ulgwa 'Na-sõnjõngbõl'üi Üimi", *Yõksahakpo*, vol. 240, 2018.
- Pak, Minsu, "Munhwa Honjongsõngüi Ironjõk Koch'al-Homi Pabarül Chungsimüro", *Inmunhangnonch'ong*, vol. 39, 2015. Pratt",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20, 4, 1994.
- Perdue, Peter C. *China Marches West: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Eurasia*. Cambridge, Massachusetts, 2005.

- Pratt, Mary Louise,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London, 1992.
- Sara Mills, “Review of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by Mary Louise Pratt”,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20, 4, 1994.
- Söl, Byöngsu, “Kǔreorhwa(Creolization), Kǔ Tach’üngiök Maengnak Ilgi”, *Ap’ūrik’ayön’gu*, vol. 27, 2010.
- Spence, Jonathan D. *The Search for Modern China*, New York, London, 2001.
- Twitchett, Denis and Fairbank John K. ed.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9, Cambridge, 2008.

The Mixed Residence and Hybridism in Kiachta, Russia's Border City of Qing in the 18th and the First Half of 19th Centuries.

Park, Ji-bae

This article is aimed to examine how Kiachta and Maimachen, the frontier cities between Russia and Qing empires, lived together and contacted each other in the 18th and the first half of 19th centuries.

Kiachta and Maimachen were the border towns builded by the Kiachta Treaty in 1727 after the long conflict between Russia and Qing during the second half of 17th century. The overall plans of the two cities, the style of the building, and the people's daily life including the clothes and food are so heterogeneous that they seem to be in a confrontational state. Border surveillance was also rigorous, and it seemed to be a tight cordon to a European visitor. Nonetheless, Kiachta and Maimachen were bordering cities facing each other, a buffer zone in which tensions of two empires were eased, and a contact zone where exchange was ongoing and various contacts in daily life occurred.

However, the contacts between Kiachta and Maimachen were not made in an highly asymmetrical relationship of power when the Europeans encountered the Americans. Overall, the two empires were in a similar power relationship on the borderline set by the Kiachta Treaty. Maintaining these borders steadily benefited both empires, which required the care and understanding, not conflict and struggle between them.

Therefore, in Kiachta and Maimachen on the border region between

Russia and Qing, it was important to acknowledge and accept the other cultures rather than the forced conversion and one-sided influences. On this basis, through Kiachta could be exchanged tremendous volumes of goods and greatly be expanded the trade and the contact between the Eurasian regions.

Key Words : Russo-chinese contact zone, Kiachta, Maimachen, Mixed residence, Hybridism